

## 조선시대 ~ 1949년까지

우리나라 재래 돼지는 고대 농업이민시대에 북방의 소형 재래종 중에서 이동이 편리한 소형종만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. 소형돼지는 만주의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피부와 피모가 잘 발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.

### ◎ 제례돼지의 특징

1904년 <조선농업 편람>에 의하면, 재래 돼지는 집부근에 울타리를 만들어 방사하거나 말뚝에 매어서 기르기도 하였으며 사료는 풀, 설거지 물, 농산부산물 등을 급여하였다고 한다.

<조선농업편람, 1904년>, <조선농업연감, 1920년>, <조선농업론, 1935년>등의 문헌을 종합해 보면, 우리나라 재래 돼지는 몸 전체 색깔은 검은색이며 털은 거친 조강모이고 얼굴은 좁고 긴 것으로 나타나있다. 또한, 귀는 작고 앞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이마에 세로 주름이 있고 등선은 평평하거나 약간 처진 상태이다. 체장은 짧고 엉덩이 부위가 좁으며 살집이 없고 등선 뒷부분부터 꼬리 부위까지 경사가 심하게 져있다. 산자수는 5~8두 정도이며 3주령 체중이 3.5kg정도이고 100일령 체중이 25.5kg인 것으로 나타나있다. 하지만 강건성이 뛰어나고 저항력이 강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.

### ◎ 1930년~1949년 (초창기)

1930년대에는 남북한 합해 1백30만여두가 사육되었다. 하지만 태평양전쟁으로 33만 여두가 감소하다 해방되던 1945년에 남한에서 19만두, 1950년 50만두여두가 사육되었다. 이때는 개량종 및 개량종과의 교잡종이 약 40%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60%는 재래종이었다. 개량종은 대부분 일본에서 도입한 버크셔종이었고 약간의 소형 요크셔종도 있었다. 그러나 이때는 개량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재래종에서 버크셔종으로 바꾸어 사육하는 경향이 있었다. 8.15광복 후 수원농업기술원에서 종돈이 유지 보존되어 오던 것을 1947년 1월 축산시험장의 모체인 농사기술원 성환축산지원이 설치되면서 적극적인 종돈의 품종 유지 보존 및 종돈의 생산보급과 양돈에 관한 시험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. 돼지의 사육형태는 농가마다 1~2두 규모로서 농업부산물과 부엌 잔반을 이용한 재래식 관리방법이었다.

(자료출처 : 한국축산연감 1989~90 농수축산신문)